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 전교의 달
제32권 48호(나혜) 2012.10.28

[묵상]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길가에 앉아 있던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친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는다.

이 기회가 그에게 어떤 기회인지 그들이 알기나할까!
그는 멈출 수 없다. 더 큰 소리로 외친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오너라.” 하신다.
하마터면 망나니 같은 군중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뻔 했다.

이번엔 사람들이 용기를 내라고 격려를 해준다.

어떤 마음으로 그를 꾸짖었고, 또 격려를 했을까?
한쪽엔 유명한 예수님이,
다른 쪽엔 구세주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들의 갈망을 왜곡하고 꾸짖는 구경꾼도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는 신앙인도 있다.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구경꾼일까 신앙인일까?
때로는 구경꾼을 넘어 훼방꾼일지도...

-框-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토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주용범 아브라함, 오장규 (생)오석만 사무엘 & 정성희 스텔라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주용범 아브라함, 이정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김풍길 바오로, 박영춘 안토니오, 유정연 헬레나, 민희철 베드로, 김호중 프란치스코, 강래봉, 김홍기 낙태된 아기들 (생)지재환 프란치스코 & 김린다 안나, 이윤조 글라라, 토런스 동1반 가정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서(Jeremiah) 31,7-9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올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5,1-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복 음 마르코(Mark) 10,46-52

영성제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217	240
봉헌	361	268	194
성체	409	309	276
파견	그사랑 야훼께	321	33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하느님 말씀, 화해, 병자 도유

“하느님의 말씀은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
은 모든 것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기 때문입니다.(2코린 5,18-
20; 에페 1,10 참조). 예수님 안에서 강생하신 하느님의 자비
로운 용서는 죄인을 다시 일으킵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고백자의 마음을 비추어 자기 죄를
알아내고 회심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도와준다.”
화해를 이루는 하느님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
서, 고해성사를 받는 각 개인이 성경의 적합한 단락을 묵상하
면서 고해를 준비하고 또한 고유한 예식에 따라 성경의 권고
를 읽거나 들음으로써 고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참회
를 표현하는 데에서는, 예식서에 따라 “성경 구절을 발췌하여
만든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특
별한 연중 시기에 또는 기회가 될 때에, 예식서에 지시된 대로
그리고 상이한 전례 전통들을 존중하면서 화해 예식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개별 고백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때에
는 적절한 독서들을 사용하면서 말씀 예식에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자 도유의 경우에도, “치유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끊임없는 회개로 부르는 살아 있는 호소”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느님의 개
입으로 이루어진 위로와 지지와 치유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계셨던 것과, 강생한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질병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당과 특히 병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병자성사를 공동체적인
형태로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 말씀 예식에
많은 공간을 할애할 것이며, 병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를
악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과 일치하여 자
신이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을 신앙 안에서 살아내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시간 전례

62). 시간 전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을 강조하는 기도 형
태에 속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교부들은, 시간 전례
가 “신자들을 성경과 또한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과 접촉하게
하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탁월한 형태”가 된다고 밝혔습
니다. <◆계속>

주여! 보게 해주십시오.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신학교 때 학보사 선배가 나에게 소개해준 감동적인 글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감동에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 글을 쓴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장애인이었습니

다. 사람들은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로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들을 때 흔히 헬렌 애덤스 켈러(Helen Adams Keller, 1880-1968) 여사를 꼽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훌륭히 극복한 현대의 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평생 교사인 앤 셸리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헬렌이 셸리반을 만났을 때는 7세였습니다. 헬렌이 어머니와 함께 보스턴의 한 시각 장애 학원을 찾았을 당시 스물한 살의 평생 교사 셸리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이 어떻게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교실에는 앤 셸리반이 언제나 곁에서 강의를 손가락 말로 헬렌에게 전해 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내용을 점자로 다시 적어 읽게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모두 셸리반의 손가락을 통하여 헬렌의 두뇌에 전달되어, 대학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던 것입니다. 헬렌은 깨어 있는 동안에는 1분 1초라도 아껴서 지식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했습니다. 헬렌은 스스로 “일평생을 하루 동안 살고 마치는 곤충과 같이 나의 생활은 매우 바빴다. 무엇이든지 강력하게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바르티메오라는 소경 거지가 예리코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되찾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면박을 주어도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눈먼 거지의 청을 들어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 소경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무능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티메오에게는 예수님만이 자비로우신 분으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르티메오는 여러 면에서 신앙인의 귀감이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눈먼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기도 못 깨닫는다면 영적인 소경의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걷고 뛰고 먹는 일상생활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보기가 어렵고, 듣기가 어렵고 걷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순간은 더없이 소중한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자주 주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소경입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송현식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정광미 프란치스카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1월 위령 성월

◆ 봉성체 :
1일(목) 오전 10시부터

- ◆ 성시간 : 1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 성모신심 미사 : 3일 오전 8시30분

- ◆ 본당 교우들을 위한 신앙특강
 - 일시 : 오늘 주일(28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제 : '긍정과 감사의 마음'
 - 강사 : 현광섭 프란치스코 신부(한국 군종교구)

- ◆ M.E. 세어링
 - 일시 : 오늘 주일(28일) 오후 6시
 - 참석대상 : M.E.를 다녀오신 모든 부부님들
 - 문의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310)780-9055

- ◆ 온천 효도관광
 - 일시 : 10월30일(화) 오전 7시10분까지 성당 집합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20(1인), \$30(부부, 가족2인 동반시)
 - 신청 : 55세이상 선착순 45명, 오늘(28일)까지 접수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 주관 : 안나희

- ◆ 남가주 한인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 응원
11월4일(토) 오후 6시부터 이웃 성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남가주한인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본당 배튼청년회에서도 선수들이 참가하여 한껏 실력을 겨룹니다. 기도중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 11월4일(주일새벽)부터 서머타임 해제
11월4일(주일) 새벽 2시를 1시로 옮겨놓으십시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도 되는셈입니다.

- ◆ 남가주 한인가톨릭 활동위령미사
 - 일시 : 11월10일(토) 연도 오후 1시30분, 미사 오후 2시

- 장소 : Holy Cross Cemetery(컬버시티)
* 본당출발 : 카폴로 닛 12시40분 성당 파킹랏
- ◆ 자모회 바자회 성원 감사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자모회 기금모금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 총매출 : \$1,663.80
 - 바자 순이익 : \$1,133(+ 본당신부님께서 \$1,000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총수익 : \$2,133

- ◆ 2012년도 마지막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24일(토) 오후 6시(10분전까지 모이세요.)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 세례 신청서 : 11월18일(주일)까지 제출
(서류 사무실에 비치)
 - 12월 세례일정을 11월로 임시 변경했사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 예비자교리 및 신자재교육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 장소 : 성전(신자재교육 차원에서 마련되는 교리시간에 일반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상본 콜링(전화)카드 판매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한글-영어 합본 상장예식서 : \$15 *사무실에서 판매

- ◆ 무료 독감예방주사 올해는 없습니다.
본당 교우가 카운티 보건면역당국에 요청해 매년 마련해온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당국의 사정으로 올해에는 없습니다. 감기시즌을 맞아 교우들께서 개인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28일(주일) : 하버/카슨구역(소고기무국 \$3)
주일학교(7학년 파스타)
 - 11월4일(주일) : 소공동체(김밥/떡 \$4)
주일학교(6학년 김치볶음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박봉성 옥근주 최수현	김관기 박정자 이상규 최영신	김상규 성낙호 익명 최현찬	문두현 신순철 정명모 최희태	문항업 오영섭 조준제 한혁수	박근식 원건희 최기호	성전헌금	고천용 김관기 문항업 박봉성 성낙호 신순철	오영섭 원건희 이상규 조준제 최현찬	최희태 한혁수	합계 : \$1,905
미사헌금 : \$2,791	전교헌금 : \$1,264						감사헌금 : 대건회	한남체인도네이션 : \$390			

공지사항

◆ 본당 레지오 단장회의

- 일시 : 11월4일 오후 1시
- 장소 : 1층 회의실
- 안전 : 연차충진목회
(단장 불참시엔 부단장이 참석해주세요.)
- 문의 : 꾸리아단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 모집

-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송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 대상 :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교우
 - 문의 : 지휘자 민원희 안나 ☎(310)634-9631

남가주 소식

◆ 2012 남가주 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

- 일시 : 11월3일(토) 오후 6시~9시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지도신부 : 최용훈 요셉 신부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Season 3'

- 미혼 가톨릭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 일시 : 11월10일(토) 오후 5시~10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 대상 : 남자(82년~73년생), 여자(84년~73년생)
 - 문의 : 전양주 데레사 ☎(562)822-6448

◆ 제31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 시편 116:12 -

- 일시 :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연합미사
- 2부행사 :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우리성당 스타일'
- 강남스타일 패러디 혹은 각본당만의 독특한 스타일 표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롱비치)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성 라파엘 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까지는 공원주차 무료 및 모자도 무료증정합니다.

◆ 2013년 LA마라톤 앞두고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SBRT :

- 사우스베이 러닝 팀) 회원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지금부터 연습, 훈련하면 됩니다.)
 - 장소 : 사우스 하이스쿨
 - 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 걷거나 뛰는 사람
 - 연락처 : 회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코치 최현찬 안드레아 ☎(310)257-1996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배태임 안나 781-9199 10/13(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막달레나, 욥올리아 539-3377 10/13(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0/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김주량 요한 989-0366 10/2(화) 오후 7시 반미사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10/23(화) 오후 7시 반미사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10/17(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1	오창애 안나 974-2857	임순 데레사 974-2857 10/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정수 헬레나 634-6923 10/11(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0/2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0/13(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이병우 마리오 784-0585 10/9(화) 오후 7시 반미사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0/21(주일) 낮 12시 성당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0/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0/12(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김인숙 안젤라 617-3568 10/9(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10월 사목회	오후 1시 신앙특강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할 때 - '신앙의 해' 선포에 즈음하여 -

지난 6월 21일 오전 교황청 공보실에서 “신앙의 해” (2012년 10월 11일~2013년 11월 24일)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교황청 새복음화촉진 평의회 의장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와 사무차장 그레이엄 벨 몬시뇰이 참석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신앙의 해 전용 누리집과 로고를 소개하고 그 기간 동안 로마에서 열릴 행사 일정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베네딕토 16세는 교서 <믿음의 문> (Porta Fidei)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더욱 북돋우기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러한 연유로 교황은 신앙의 해를 선포했다.”고 했다.

그는 “신앙의 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막 50주년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이라는 두 기념일과 맞물려 있다”며, “신앙의 해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신앙을 북돋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신앙의 해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자리하고 있다”며, “이 신앙의 위기는 인간이 제 죄에 빠진 인간학적 위기의 극적인 표현이며,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영적 빈곤은 극복되어야 한다. 신앙의 해는,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제공하는 기회”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교회를 상징하는 배의 형상을 한 신앙의 해 로고에 대하여 설명했다. 배의 돛대는 십자가 형상이고, 돛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문자 IHS를 본떴으며, 그 바탕에는 성체를 가리키는 태양이 있다.

신앙의 해 누리집(www.annusfidei.va)은 여러 언어로 이용 가능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저는 믿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Credo, Domine, adauge nobis fidem)라는 제목의 신앙의 해 공식 찬미가도 있다. 다국어로 된 “신앙의 해를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사목 지침도 간행된다. 신앙의 해의 행사에 참석하는 순례객들은, 뒷면에 성경이 적혀 있는, 시칠리아의 체팔루 주교좌 성당의 그리스도 상본을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피시켈라 대주교는 교황이 참석하고 로마에서 거행되는 중요한 신앙의 해 행사들을 소개했다.

개막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 되는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렸다.



YEAR OF FAITH 2012-2013

시노드 교부들과 전세계 주교회의 의장들과 살아계시는 공의회 교부들의 공동 집전으로 장엄 성찬례가 거행되었다.

2012년 10월 21일 주일에는 순교자 일곱 분, 곧 자크 베르티외(프랑스),

페드로 칼롱소드(필리핀), 조반니 바티스타 피아마르타(이탈리아), 마리아 델 카르멘(에스파냐 마리아 살레스 이 바란구에라스 태생), 카테리테카퀴타(이퀴로이 인디언), 마리안느 코프와 안나 샤퍼(독일)의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2013년 1월 25일에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거행하는 전통적 교회 일치 예식에 참석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함께 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일치의 길을 잊지 않도록” 기도할 예정이다.

2013년 4월28일에는 교황 성하께서 젊은이들에게 건진성사를 준다. 2013년 5월5일은 대중 신심의 날로 지낸다. 2013년 5월18일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에는 친구 가톨릭 단체들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다. 2013년 6월2일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에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성체 조배한다.

2013년 6월16일 주일은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며 보낸다. 2013년 7월7일은 세계 각지에서 온 신학생들과 수도회 수련자들의 순례가 성 베드로 광장에 모임으로써 마무리된다. 2013년 9월29일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을 맞이하여 교리 교사들을 위한 날로 지낸다.

2013년 10월13일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의 현존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2013년 11월24일에 신앙의 해 폐막식이 열린다.

신앙의 해에는 또한 교황청 부서들이 주관하는 여러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여기에는 갖가지 문화 행사도 포함된다. 2013년 2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베드로 성인에 관한 전시회가 천사의 성(카스텔 산탄젤로)에서 열릴 예정이며, 2013년 6월 22일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바티칸 통신(Vatican Information Service)